

동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45호 [루계 제2408호]

주제 105
(2016년 10월)
29일
토요일
음력 9월 29일

6. 15 공동선언의 기치 아래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통일을 앞당기자!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의 숨통을 조이며 조선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굳건히 수호하고 계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국제사회가 또 한분의 백두산형의 장군, 무비의 담력과 배짱을 지니신 강철의 영장으로 높이 칭송하고 있다.

꽁고제인민간의 친선협회 꽁고조선친선위원회 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크지 않은 나라 조선이 어떻게 세계최대의 핵대국과 맞서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당당히 떨쳐가고 있는 것인가?

항시적으로 일촉즉발의 침에 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는 조선반도에서 어떻게 평화가 수호되고 있는가?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고 계시기 때문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유일초대국으로 자처하는 미국도 감히 어찌지 못하는 자주의 강국, 동북아시아와 세계

백두의 영장 김정은최고사령관 만세!

국제사회가 높이 칭송

의 평화를 수호하는 강력한 보루이다.

마차르로동당 위원장, 베니 사회주의당 위원장, 인디아주체사상자력생연구회 서기장은 조선의 초강경대응과 결연한 반제혁명적립장을 반미대결전의 본보기로 되고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되고 막강한 전쟁억제력까지 갖추고 있는 조선을 미국은 똑똑히 알아야 한다.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군대와 인민뿐 아니라 세계반제혁명력량의 최고사령관이시다고 강조하였다.

스위스조선위원회, 스위스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칭송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선군의 위력으로 미제의 범죄적인 핵

전쟁소동을 분쇄해버리신다.

그이께서는 결정적이고 단호한 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심으로써 전쟁광신자 미제가 감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침략할 엄두도 내지 못하게 하시여 조선반도의 평화를 수호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대세력들이 조선에 대해 도발을 걸 때마다 특출한 영군술로 그를 단호히 제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는 김일성대원수, 김정일대원수와 꼭 같으신 전설적인 선군령장이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 이 신 백두의 영장 김정은최고사령관 만세!

방글라데슈신문 『블리즈』, 나이제리아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를 비롯한 출판보도물들도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조미대결전에서 그 깊이와 폭을 알 수 없는 지략으로 미국을 수세에 몰아넣고 계신다. 그이의 초강경의지앞에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파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미대결전에서 백승을 멸치시는데 대해 세계가 경탄하고 있다

고 전하였다. 로씨야신문 『웨제란』은 다음과 같은 글을 게재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의 온갖 도

전속에서도 끄떡없이 사회주의 조선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김정은령도자의 정

치특징은 무엇인가.

김정은령도자의 정치는 결

심이 확고하고 신념이 투철한 정치,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신묘한 정치이다.

도이췰란드반제연단 인

터네트홈페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께서는 천출명장으로서의 빛나는 군사적예지로 조선인민군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신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들

의 전승령도업적과 선군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수많은 단위들을 끊임없이 찾으시여 전승의 혁사, 선군승리의 혁사를 더욱 빛내이시였다.

또한 미국의 가중되는 핵위협

에 대처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고 타월한 영군술로 조선반도의 평화는 앞으로도 굳건히 수호될 것이다.

세네갈신문 『러 뽀뿔레르』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그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군사적안목으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선군사상파업적을 빛내여 나가시는 김정은최고사령관께서는 첨예한 반미대결전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틀어쥐고 련전련승을 안아오신다.

그이께서는 세계정치무대에서 담력과 배짱이 제일 강한 령도자로 공인받고 계신다.

그이는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의 지위를 확고히 다지시는 만능의 영장, 희세의 전략가이다.

참으로 국제사회가 격찬하듯이 백두산호랑이의 기상으로 미제의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쳐갈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의 선군위업은 필승불패이며 조선반도의 평화는 앞으로도 굳건히 수호될 것이다.

본사기자

조국소식

전국제약 및 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

전국제약 및 의료기구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5일과 2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진행되었다.

발표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평양의학대학, 국가과학원 생물공학분원, 조선고려약기술사, 평안남도인민병원,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을 비롯하여 교육, 과학, 보건부문 일군들, 교원, 연구사들이 참가하였다.

제약분과와 의료기구

분파로 나뉘어 진행된 발표회에서는 조선로동당의 보건정책을 높이 받들고 의약품, 의료기구생산을 현대화,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에서 이룩된 70여건의 가치 있는 과학기술성과자료들이 소개되었다.

현대의 학발전 추세에 맞게 효능높은 의약품,

첨단수준의 치료설비들,

의료기구들을 연구개발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들

을 해결한 논문들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부레나핀염산염의 공업적제조방법에 대하여』, 『진공법에 의한 고려약엑스추출방법』, 『초고압고려약추출기』, 『다기능전원선팩기』 등의 논문들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한 논문을 발표한 참가자들에게 중서가 수여되고 해당한 시상이 있었다.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 개막

제27차 전국정보기술성과전시회가 개막되었다.

전시회에는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정보기술을 급속히 발전시키며 공장, 기업소들의 자동화, 지능화, 무인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과정에 개발된 1 300여건의 우리식 조작체계용응용프로그램들이 출품되었다.

프로그램들은 전문가부류와 비전문가부류로 갈라 정보보안, 인공지능 및 조선어정보처리, 설비와 생산공정조종, 정보통신 등 15개 분파로 나뉘어 전시되었다.

그 가운데는 생산과 경

영활동의 지능화, 정보화, 수자화, 자동화, 기계화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통합생산 및 조종체계와 경영정보체계 구축에 필요한 프로그램들, 장치, 요소들, 교육, 보건, 체육부문의 프로그램들이 들어있다.

전시기간 컴퓨터통합생산체계프로그램, 체육경기모의분석프로그램 등 여러 부문의 경연도 진행되게 된다.

개막식이 26일 과학기술전당에서 있었다.

개막사를 리총길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이 하였다.

연설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과학기술과 경제의 일체화를 다

그치고 나라의 경제를 현대화, 정보화하는데서 과학기술부문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이끌어주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이번 전시회가 프로그램개발능력을 한계단계에서 좋은 계기로 될것이라고 하면서 참가자들이 새 기술교류를 적극 벌려나가야 할것이라고 그는 강조하였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 아보았다.

본사기자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영예의 제1위 쟁취

요르단에서 진행된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가 우리 나라 여자축구팀의 우승으로 결속되었다.

이번 경기대회 조별련맹전 3조에서 1위를 하고 준준결승경기에서 가나팀을, 준결승경기에서 베네수엘라팀을 물리친 우리나라 팀은 결승경기에서 일본팀과 대전하였다.

축구전문가들과 애호가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우리 나라 팀과 일본팀 사이의 결승경기가 22일 (평양시간)에 진행되었다.

조국인민들의 기대와 당부를 새겨안고 출전한 우리 선수들은 경기를 신

심하게 운영해나갔다.

결승경기는 빠른 기동과 높은 기술동작으로 공격과 방어를 능숙하게 해나가는 팀원선수들의 맹활약으로 하여 시작부터 치열하였다.

주도권을 쥐기 위한 양팀선수들의 경기활동은 맹렬하였지만 전반전은 득점없이 끝났다.

후반전에서 우리 선수들은 중간지대에서의 공장률을 높이고 좌우측 면돌파에 의한 공격으로 상대팀의 꼴문을 련속 위협하였다.

앞선에서의 공빼앗기와 불의적인 차넣기 등 우리 선수들의 맹렬한 공격에 의해 상대팀문전에

서는 여러번 혼전이 벌어졌다.

결국 경기에서는 우리 나라 팀이 일본팀을 5:4로 누르고 영예의 제1위를 쟁취하였다.

시상식에서는 2016년 국제축구련맹 17살미만 여자월드컵 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우리 여자축구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이 수여되었다.

조국인민들의 기대에 훌륭히 보답한 커다란 공지와 승리자의 환희에 넘쳐 열싸안고 람홍색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리며 기쁨의 눈물을 금치 못하는 우리 선수들에게 관중들은 열렬한 박수갈채와 환호를 보내었다.

본사기자

지난 19일 박근혜역적폐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반일감정과 주변나라들의 반발을 의식하여 형식상으로나마 일본『자위대』의 조선반도진출시도에 항의하기도 하고 군사협력협정체결도 외면하면서 미국이 요구하는 『3각군사동맹』 구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나서

군사 및 『대북』 정보력에 의존하여 공화국에 비한 저들의 군사적렬세를 만회하고 미일상전파의 『대북압박공조』를 어렵게 하나 지탱하여 추악한 반공화국압살야망을 실현해보려는 남조선보수당국의 발악적기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제반 사설들은 박근혜

제반 사설들은 박근혜 평대되고 있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위험은 날로 질어가고 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들이 감히 자기의 자주권과 존엄을 털끌만큼이라도 진드리려 한다면, 계속 무모한 북침전쟁도발책동에

광분한다면 무자비한 정벌타격으로 침략자, 도발

자들이 빠져 추리지 못하게 할것이라는것이 공화국군대의 의지이고 초강경대응자세이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은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자위적핵억제력강화조치를 걸고들면서 조선반도와 지역정세를 격화시키고 전쟁위기를 증대시키는 무모한 책동에 계속 매여달리다가는 무자비한 징벌맛, 불세례맛을 똑똑히 보게 된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자멸을 재촉하는 공모결탁

는 공화국의 『핵, 미싸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밀ie 미국의 핵전략자산을 총동원한 『북침핵전제공격』 기도를 모의하고 보다 구체화하였으며 침략적인 『3각군사동맹』 구축을 다그쳐 북침전쟁준비를 완성하려는 위험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이 이루어졌다.

엄중한것은 역적폐당이 이번 모의판을 통하여 『3각군사동맹』 구축에 적극 나선것이다.

지난해 까지만 하여도

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역적폐당은 모든 가면을 벗어던지고 미국남조선『군사위원회』에 이어 일본『자위대』 통합막료장과 『합동참모본부』의 『장회의』를 가지자는 미국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나섰을뿐아니라 회의에서 미국, 일본과 그 누구의 『도발』에 대응한 『3자군사공조』 방안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등 『3각군사동맹』 구축에 적극 발벗고나섰다.

이것은 미국과 일본의

제반 사설들은 박근혜 평대되고 있다. 미국과 박근혜역적폐당의 무분별한 책동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 외세가 제 세상처럼 활개치고 조선반도에는 평화와 안전이 아니라 핵전쟁위험만이 더

본사기자 김명성



공화국이 건설하는 경제강국은 자립성과 주체성이 강하고 과학기술을 기본생산력으로 하여 발전하는 나라이다.

국방건설과 경제건설, 인민생활에 필요한 물질적수단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며 과학기술과 생산이 일체화되고 첨단기술산업이 경제장성에서 주도적역할을 하는 자립경제강국, 지식경제강국을 건설하는것이 바로 공화국이 내세운 목표이다.

그 실현을 위한 길에서 사소한 답보나 침체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시간표대로 추호의 변화도 없이 출기차게 나아가고 있는 공화국이다.

이 힘찬 전진을 가로막아보려고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은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 가장 비렬한 《초강도재재》와 전대미문의 군사적 압살, 횡포무도한 《제도봉파》책동으로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질식시켜보려고 하고있다.

그러나 공화국은 자력자강의 위력으로 적대세력의 도전에 끄떡하지 않고 경제강국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들을 이룩하고있다.

올해에만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김정숙평양제사공장, 평양공산공장, 민들레학습장공장, 보건산소공장, 평양체육기자재공장, 평양자라공장, 평성합성가죽공장, 천리마건재종

자기 힘으로 밝은 앞날을 개척해간다

합공장을 비롯한 새 세기 표본, 표준공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개건현대화되어 중산의 동음 높이 올리고 있으며 대동강과 수종합농장과 고산과 수종합농장에서 과일대풍을 안아와 자력자강의 위대한 생활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였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만 강하면 얼마든지 자체의 힘으로 경제강국을 일떠세울 수 있다는 자신심과 배짱을 안겨주는 자랑찬 결실인 것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경제적자립을 떠나 부강조국을 일떠세우려는 것은 모래우에 집을 세우려는 것과 같은 것이며 그것은 결국 꿈에 지나지 않는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드림없는 신조를 좌우명으로 삼으시고 언제나 자체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 경제강국건설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원료, 연료, 자재들을 국산화하는 것과 함께 설비의 현대화도 국산화를 기본으로 하는 원칙에서 자립적민족경제를 발전시켜나가도록 혁명하게 이끄시고 계신다.

지난 1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남의 덕으로 가 아니라 자기식의 투쟁방식,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믿을

창조방식으로 자기의 힘을 천백배로 강화해나가는 것이 바로 자강력이라고 하시면서 우리가 경제강국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키자고 해도, 인민들이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게 하자고 해도 자강력제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러시면서 만부하로 돌아가고 있는 공장을 보니 정말 힘이 난다고 하시면서 공장에서 울려퍼지는 생산정상화의 동음소리, 자력갱생의 동음소리는 머지 않아 세상만복을 누리며 살게 될 우리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는 혁명승리의 동음소리이며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퍼를 물고 날뛰는 원쑤들에게는 무서운 철추를 내리는 징벌의 동음소리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지난 5월 새로 제작한 기계설비들을 보아주시면서도 우리는 앞으로도 자체의 힘과 기술, 자원에 의거하여 주체적령도를 받아야만 영웅적인 힘, 활화산같은 힘으로 분출할 수 있다.

지난 4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를 현지지도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해당부문의 한 일군이 우리 돌격대원들은 세계를 놀래우는 영웅청년신화를 원수님 믿음이면 지구를 듣다는 신념을 안고 창조하였다고 말씀을 올리었을 때였다.

그이께서는 그럼 나도 한 마디 하겠다고, 청년들이 지구를 들면 나는 그 지구를 계속 돌리겠다고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영도자의 믿음으로 거대한 지구도 단숨에 들어올리고 영도자는 청년들의 그 힘에 의거하여 세계를 움직이시겠다는 이 확신에서 청년강국인 조선의 힘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알 수 있게 한다.

남조선의 한 정치외교학 교수는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건설과 같은 거창한 사업을 청년들에게 통채로 말기고 훌륭히 완공하여 청년강국의 위용을 만천하에 과시한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북은 청년들을 내세우고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어려운 난국을 타개해나가고 있다고 평하였다.

영도자는 청년들을 끌없이 사랑하고 믿어주시고 청년들은 영도자의 두리에 몽쳐 그 사랑과 믿음을 퍼뚫는 청춘의 열정과 힘으로 분출하는 여기에 막강한 공화국의 위력이 있고 승리에 걸맞는 억센 기상이 있다. 청년강국의 기상으로 공화국은 사회주의강국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운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청년들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맥동치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연설에서도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

것은 오직 자기의 힘밖에 없다고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 시다.

찾으시는 곳마다에서 자강력제일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고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는 그이의 혁명한 정도아래 경제강국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주체성과 자립성을 세우기 위한 투쟁이 전군중적운동으로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다그쳐 경제전반을 세계적수준에 올려세우시려는 그이의 결심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그이께서는 세계와 당당히 경쟁 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하자면 공장발전전략을 잘 세우는 것과 함께 제품생산과 질제고, 설비관리와 경영활동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과학기술의 힘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 하군 하신다.

과학기술발전에 선차적인 힘을 넣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우리의 자원과 기술로 생산을 늘이며 설비와 생산공정의 CNC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과학연구부문에서 나라는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전망적으로 풀어

야 할 문제들과 현실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며 전사회적으로 과학기술증시 기풍을 세우고 전민과학기술인 재화를 실현하여 경제강국건설의 지름길을 하루빨리 열어나가도록 가르치시는 그이의 혁명한 정도아래 나라의 경제는 과학기술을 기관차로 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지난 7월 평성합성가죽공장을 찾으신 그이께서는 생산을 비약적으로 늘이자면 원료, 자재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는 것과 함께 선진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생산과 경영활동의 통합생산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며 생산공정의자동화, 무인화를 실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1월 18일 기계종합공장을 찾으신 그날에도 우리의 머리로 설계하고 우리의 손으로 만든 기계제품이어서 볼수록 소중하고 귀중한 재부처럼 느껴진다고, 우리의 힘과 기술, 우리의 자원에 의거하여 우리식의 현대적인 기계제품들을 만들어내는 사업은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이며 CNC설비를 사용하는 모든 기대공들이 품위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

다고 이르시였다.

과학기술로 강성국가의 기초를 굳건히 다지고 과학기술의 기관차로 부강조국건설을 다그쳐나가시려는 그이의 혁고한 결심과 의지, 혁명한 정도아래 온 나라에 전민과학기술인재화의 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고 자식경제시대를 대표하는 본보기, 표준공장들이 일떠서 경제강국건설의 밝은 래일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나날이 비약하는 공화국의 경제성과를 두고 남조선 각계에서도 《김정은위원장의 과학기술우대정책으로 북에서 창업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과학기술정책은 북의 산업현장과 민생수요를 반영하는 한편 국제적주제로 일치한다는 점에서 보다 합리적이다》는 친란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 있다.

반공화국적대세력이 《북으로 첨단과학기술분야의 원천기술들이 포함된 사소한 기술제품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모든 통로를 차단해야 한다》며 조선의 과학기술과 경제발전을 악랄하게 가로막아도 령도자의 세련된 정도따라 전체 인민은 불리는 애국심과 정열, 지혜로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오철훈

현지지도에 바쁜 위인의 거룩한 세계

지구상 곳곳에서 사회의 진보와 발전의 기본력으로 되어야 할 청년들이 극단적인 절망과 자포자기, 부패타락에 빠져 사회의 풀치거리, 우한거리로 되고 있는 현실은 세계적인 난문제의 하나로 되고 있다.

사회와 제도의 존망을 위협할 만큼 청년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지만 공화국에서는 청년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었다.

청년강국! 이 부름에 그 어느 나라에서도 실현하지 못한 청년 문제를 완벽하게 실현한 공화국의 자랑과 위상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청년문제를 중요한 국사로 여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사랑과 믿음으로 청년들을 사회와 인민앞에 높이 내세워주시고 시대와 조국의 별로 청춘의 이름을 빛내여주신다.

청년들을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금방석에 앉히고 저 하늘의 별을 따다가 젊은 가슴들에 달아주고 싶다고 하신 그 말씀에는 청년들을 제일 사랑하고 아끼고 내세워주시는 그이의 크나큰 믿음과 사랑이 맥동치고 있다. 김일성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대회에서 하신 혁사적인 연설에서도 원수님께서는 우리의 청년들이야말로 온 세상이 부러

위하도록 높이 떠받들어주고 싶은 애국적이고 영웅적인 청년들이라고, 이런 미더운 청년대군을 가지고 있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큰 복이고 조선의 자랑이라고 뜻겁게 말씀하시였다.

사랑의 감정은 가장 아름다운 언어로 표현된다고 하였다.

청년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대견하시였으면 청년들을 만나실 때마다, 청년들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원수님께서는 그처럼 자신의 심중을 터쳐 정을 토로하시겠는가.

진주보석, 천군만마, 천하무적의 청년대군... 새겨볼수록 청년들에 대한 국진한 사랑이 마쳐오는 말씀들이다.

사랑과 믿음에는 보답이 따르기 마련이다.

령도자의 극진한 사랑과 하늘같은 믿음에 청춘의 힘과 정열을 다하여 애국충정하려는 것은 온 나라 청년들의 하나같은 의지이고 신념이다.

청년들의 지옥인 남조선에서 20~30대 청년들이 취업이나 사랑에 대한 운명을 점쳐준다는 《사주카페》를 방황하고 지겨운 남조선땅에 침을 뱉고 《탈한국》의 앞장에 설 때 공화국에서는 청년들이 영도자의 뜻을 따라 조국이 부르는 곳으로 맨션 참달려가고 세계를 들썩이게 하는 일대변혁과 기적을 암아오는 시대의 주인공으로 그 이름을 빛내이고 있다.

백두산영웅청년발전소만 놓고봐도 그렇다. 백두산영웅청년신화로 청년들이 쌓아올린 1호발전소언제를 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저 높이 쌓인 언제는 우리 청년들의 불타는 애국충정심의 뿌적이며 언제의 높이는 영웅청년을 가지고 있는 우리 조국, 청년강국의 존엄의 높이라고

얼마전 취재차로 문수지구를 지나던 나는 새로 일떠선 류경안파종합병원을 보게 되었다. 외래병동앞면에 사람의 눈을 형상하여 특색있게 전설한 이 병원은 첫눈에도 안과전문병원임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하였다.

건물의 이채로움에 마음이 끌리고 발걸음이 끌리는 것을 어쩔 수 없어 그곳으로 다가가는 나의 마음에 문득 마쳐오는 것 이 있었다.

가까이 다가설 수록 병원건물에 형상된 눈동자가 한갓 전물의 특색을 부여하기 위해서 만이 아닌 것으로 느껴졌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눈동자에 비겨 말하곤 한다.

눈동자와도 같이 귀중히 여겨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사람의 몸에 없이 천냥이면 눈이 팔백냥이다...

바로 이 토록 귀중한 눈을 지켜 주시려고 천만금을 아끼지 않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하도록 하신 원수님이 시다.

하지만 류경안파종합병원이 나의 심금을 세차게 울리는 것은 얼마전 인터넷을 통해 보았던

잊혀지지 않는 자본주의 나라의 한 소녀의 모습

인민들에게 밝은 눈을 주려고 천만금을 아낌없이 부어주는 내 나라와 사람들이 자기의 귀한 눈을 몇푼의 돈에 팔아야 하는 자본주의 사회와의 관이 한 현실이 대조적으로 안겨왔다.

적대세력들이 제아무리 흐린 눈으로 북의 《인권》실상이 《참혹》하고 《비참》하다고 떠들어도 그것은 한갓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머리를 들어 밝게 빛을 뿌리는 듯 한 눈동자를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사랑이 담긴 그윽한 눈빛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다.

그 눈빛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따뜻이 감싸고 지켜주고 있다.

리경월

간상 눈빛

렁듯 훌륭한 병원을 인민들에게 안겨주신 것이다. 완공된 병원을 찾으시여 인민들을 위해 꼭 하고 싶었던 일을 해놓았다고, 인민들을 위한 자신의 소원이 또 하나 풀렸다.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을 말할 때 사람들은 눈동자에 비겨 말하는 여운을 남기고 있다.

인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현대적인 보건시설들을 련이어 건설

때문이었다. 병에 걸린 엄마의 엄청난 치료비때문에 자기의 눈을 팔겠다는 광고를 들고 서있는 그 소녀의 눈물고인 눈. 그러나 소녀를 동정하는 눈빛은 그 어디에도 없었다.

차디찬 자본주의땅에 서 소녀에게 와닿는 것은 서리처럼 차디찬 외면과 랭대의 눈빛이었다.



한현옥

동해의 명승지구에 있는 갈마식료공장에서는 말린명태, 명란젓, 창난젓, 말린나지를 비롯한 여러가지 수산물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공장은 경영활동의 정보화를 높은 수준에서 완비하였고 물고기 가공으로부터 운반, 포장에 이르는 모든 생산공정이 흐름식으로 되어있다.

내부는 궁전 같고 외부는 공원을 방불케 하여 마치 도정결하고 아담한 휴양소 혹은 문화시설 같은 느낌을 주는 공장이다. 멋쟁이공장이라는 감탄이 절로 나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이 공장을 두차례나 현지지도하시였다. 세해전 6월 하순과 8월 중순이다. 한번은 공장이 건설되어 조업을 앞둔 때였고 다음은 생산을 시작하였을 때였다. 그이께서 불과 50일도 안되는 사이에 공장을 두번이나 찾으신 까닭은 무엇인가.

그이께서 공장을 현지지도하시며 하신 말씀이 있다.

갈마식료공장은 수산물가공공장, 식료가공공장의 표준공장, 본보기공장으로 되어야 한다.

그 공장을 전형단위로 만들어 적극 일반화하는 것으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도 혁신과 비약, 창조의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시려는 송고한 의도가 담긴 말씀이었다.

일찌기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한점의 불꽃이 거세찬 불길로 타오르게 하는 것은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이라고 하시였다. 시범단위로 될 대상을 바로 정하고 그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새로 꾸리는 시범단위가 전국의 본보기로 되어 온을 내게 하는 것이 장군님의 령도예술이였다.

계승성과 시대성, 로숙성과 령활성이 리상적으로 결합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비범한 령도방법이 바로 그러하다.

그이께서 갈마식료공장을 처음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새로 선 공장을 돌아보시며 동해지구에 수산물가공기로 본보기, 표준으로 될 식료공장을 잘 꾸리려고 결심하고 이 공장을

건설하도록 하였다고 하신 그이께서는 인민들의 식생활에 실지 도움이 되는 공장으로, 온 나라에 소문을 내는 공장으로 되자면 명제품들을 꽉꽉 생산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 공장을 본보기공장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였다. 그러자면 공장에서 선진식료가공기술을 도입하는 문제, 가공품의 진공포장문제, 기업전략, 경영전략을 바로세우는 문제,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는 문제 등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되게 하는데서 나서는 파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였다.

그이의 현지지도후 공장은 남들이 따라배우고 따라앞서도록 하기 위한 전형단위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생산의 동음을 울리게 되었다.

경영활동의 정보화,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생산물의 맛과 질에서 경쟁력을 가진 인기제품을 취임없이 생산하고 있는 갈마식료공장이다.

이런 본보기, 표준공장들은 수다하다. 금컵체육인종합식료공장, 평양강냉이가공공장, 원산구두공장, 평양푸산공장, 천리마건재종합공장과 같이 표본이 되는 공장들이 줄을 섰다. 과학과 교육, 보건, 체육을 비롯한 문화건설부문에서도 맨앞에서 선도하는 단위들이 날마다 늘어나고 있다.

불꽃이 많을수록 불길은 더 많이, 더 거세게 활활 타오르기 마련이다.

혁신의 봉화가 비약의 불길로 타번지도록 하여야 한다시며 오늘의 만리마시대의 선구자, 기관차적역할을 할 전형단위들이 나오도록 하시고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따라배우기, 따라앞서기 열풍이 일도록 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경제강국, 문명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길에서 기적적인 전면파 성파들이 다발적으로, 령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본사기자 리설

위대한 인민의 모습

장한새 조선의 선구자

해방후 두번째의 봄이였다. 5.1절을 맞이한 평양은 홍분과 열정으로 들끓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이날 평양시 5.1절기념 군중대회에 1947년도 인민 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중산 경쟁운동에서 선구자로 나선 모범로동자대표들을 불러주시였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그들을 경축연회에 참가시켜주시였다. 멀리 조국땅 한끝 두만강변의 어느 한 탄광에서 선발되어 이날의 행사에 참가한 김직현의 홍분과 감격은 커다.

(영명하신 장군님, 장군님께서 계시여 우리 탄부들이 살아나고 우리 조선이 오늘처럼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장군님, 고맙습니다.)

20대의 청년인 김직현은 낮에 있는 군중대회장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연회장으로 결음을 읊겨가는 길에서도 이 세찬 느낌으로 하여 내내 눈물을 머금고 있었다.

김직현은 이날의 연회장에서 위대한 수령님으로부터 대를 물려가며 잊을 수 없는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그이께서 연회장에 나오시였을 때였다. 장내는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으로 들끓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1947년도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앞장에서 나가는 혁신자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아주시며 걸어오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의 앞에 이르시였다.

그이께서는 반가움에 넘치신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동무에 대한 소식을 듣고있다고, 벌써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했다니 대단하다고 하시며 그의 손을 따뜻이 잡아주시였다.

순간 김직현은 너무도 송구스러워 몸돌바를 몰라하였다. 지난날 막별이로 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열네 살때부터 철성판을 등에 지고 오소리굴같은 땅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되었던 김직현이었고 그때로부터 10년세월 마소처럼 부림을 당하던 나날에 가슴에 맷힌것은 원한과 설음뿐이었던 그였다.

김직현의 손을 놓지 않으신채 오늘로동자, 농민이 나라의 주인이 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날 제일 혈벗고 굽주리며 고생하던 탄부들이 새 조선 건설에서 응당 맨 앞장에서야 한다고 교시하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광경을 커다란 감동속에 지켜보고있는 연회참가자들쪽으로 돌아서시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주인으로 나선 어엿한 새 세대인 청년탄부의 손을 높이 쳐들어주시며 우렁우렁하신 목소리로 교시하시였다.

『동무들, 이 동무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세운 올해 인민경제계획의 자기과제를 벌써 완수한 재탄공입니다. 장한새 조선의 선구자입니다.

김직현은 그후 탄광에서 굴진이 기본이며 굴진을 확고히 앞세워야 생산을 높일수 있고 정상화할 수 있다고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고속도굴진운동의 첫 봉화를 높이 들고 굴진속도를 4배, 5배로 높이는 눈부신 투쟁의 앞장에 섰으며 마침내 5개년 계획파제를 불과 1년 2개월에 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직현의 성과를 누구보다 기뻐하시며 그를 탄광지배인으로 내세워주시였으며 그의 사업과 생활을 걸음 걸음 따뜻이 손잡아 이끌어주시였다.

그가 불치의 병으로 앓고있을 때는 못내 가슴아파하시며 내가 바쁜 일때문에 문병을 가지 못하니 내 대신 김직현을 찾아가서 나의 안부를 꼭 전하라고 하시며 한 일꾼을 그의 명상으로 보내시였다.

그러시고는 그를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대책을 다 취해주시였으며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에는 그의 장례를 잘 치르도록 하시였다.

해방전 길가의 막돌처럼 버림받던 평범한 탄부인 김직현을 온 나라가 다아는 장한새 조선의 선구자로 내세워주시고 대를 두고 길이 전할 사랑을 베풀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이 뜨거운 사랑은 오늘도 길이 전해지고있다.

본사기자 김춘경

공장으로 찾으신 두차례연 두차사례연

이번에 나는 재중조선인총련합회 조국방문단 성원으로 처음 조국을 방문하였다. 부모형제들과 혜여진지 50여년이 지났다.

해방전 우리 가정은 중국 흑룡강성에서 살았는데 농사를 짓던 부모들은 일곱자식을 키우느라 고생시킨 일들도 많았지만 그들은 일찍이 힘들어했다. 해방 후 조국에 나와 살던 고모에게서 소식이 왔는데 고모부가 봉강군에서 군교육부장을 하고 있고 조국에서 무상치료제와 의무교육제를 실시하여 살기 좋다는 것이였다.

그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조국으로 나갈 결심을 하였다. 우리 7남매를 공부시키자고 해도 그렇고 자식들을 건강하게 키우자고 해도 농사군수업으로 학비와 치료비도 데려갈 수 없었던 것이다.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키우기 너무 힘들어 자식이 없는 외삼촌네 집에 16살이었던 나를 양자로 데려보냈다. 그래서 나는 조국으로 나가는 부모형제들과 혜여졌다. 그때가 1962년이었다.

그로부터 수십년후 나는 처남대을 통하여 북에 살고있는 형제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혈육들에 대한 소식을 들으니 눈물이 앞섰고 70살이 되고보니 죽기전에 꼭 만나보고싶어 조국을 방문하기로 결심하였다.

내가 조국을 방문한다고 하니 사람들이 만류했다. 북의 형편이 어렵다는 데 모름지기 형제들이 고

조국방문인상기

내안긴 조국의 품은

생하고 만나기 어려울것이라는것이였다. 안해도 팬한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고 만류했다.

한편 내 마음속에도 동요의 물결이 일었다. 근 10년동안 남조선에서 떠돌이 생활을 한것이 혹시 북의 형제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에서였다.

그러나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수십년세월 떨어져 살아온 혈육들을 만나보고싶은 심정을 막을수는 없었다. 조국을 방문해서야 나는 나의 결심이 옳았다는 것을 확신했다. 한명도 만날수 없다던 형제들과 조카들을 무려 13명씩이나 만났으니 말이다.

세월이 흘렀어도 혈육들의 어릴적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나 만나자부터 눈물이 앞섰다. 형제들은 나이가 많아 년로보장을 받고있었고 조카들중에 체신소 소장, 타이소 소장을 비롯하여 일군들이 여러명이나 되었다.

그들이 이국땅에서 외롭게 살면서 고생했겠다며 따뜻이 위로해줄 때 눈시울이 뜨거웠다. 그들 모두가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고있는지 지금껏 밖에서 들어왔던 모든 협담들이 거짓임을 깨달았다.

사실 6명이나 되는 형제들과 조카들을 위해 나름대로 무엇인가 꿈꿔가

느라 했지만 오히려 그들에게서 받은것이 더 많았다. 형제들은 얼굴 한번 보지 못한 형수님한테 갖다주라고 희귀한 물건들과 유명한 강서약수, 옷감들을 한가득 안겨주었는데 들고가기 힘들 정도였다. 이역에서 고생하는 동포가 왔다고 온 마을이 멀쳐나 푸짐하게 음식상도 차리고 제일처럼 기뻐해주시니 정말 사람사는 세상에 온것 같았다.

이렇게 나는 수십년만에 그리운 혈육들과 반갑게 상봉하였다. 북에 가면 친척상봉을 할수 없다고 하던 친지들과 안해에게 보여주자고 조국방문의 나날들과 형제들파의 상봉장면을 사진으로 남기였다. 돌아가 그 사진들을 보여주면 모두가 깜짝 놀랄것이다.

정말이지 처음 외보는 조국방문의 나날은 놀라움과 감동이었다. 궁궐같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귀여운 아이들의 공연도 감상하고 민족의 명산 금강산의 구룡폭포, 삼일포, 해금강을 돌아보면서, 마식령호텔과 스키장 그리고 창천

거리, 미래과학자거리와 같은 인민사랑의 창조물들을 경탄속에 바라보면서 꿈나래에 와있지 않는가 하고 생각했다.

이역에서 고생스럽게 살던 내가 이런 훌륭하고 희한한 구경을 할수 있고 그 향유자가 될수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다.

진정 우리 조국이야말로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고 평범한 근로인민대중이 국가와 사회의 주인이 되여 세상에 부림없이 살고있는 세상에 둘도 없는 행복의 땅이다.

그럴수록 나이 60이 되어 돈을 벌겠다고 지옥같은 남조선땅에서 하루 10~12시간씩 고된로동을 해가며 천대와 멸시를 받던 나날들이 떠올랐다.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 손바

막한 땅을 놓고도 피투성이가 되어 싸우는 악육강식의 썩고 병든 세상이 바로 남조선사회이다.

이번에 조국에 와서 나는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이 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여 제국주의 강적들도 벌벌 떠는 동방의 혁강국, 전략로케트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른 내 조국의 강대함에 대하여, 어제와 오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게 비약적으로 번모해가는 사회주의조국의 눈부신 발전면모를 경탄속에 목격하였다.

이번에 조국에 와보길 정말 잘했다. 돌아가면 사람들에게 내가 보고 느낀 모든것을 사실그대로 이야기해주겠다.

나는 이제 더 바랄것이 없다. 있다면 해외에서 조국의 부강번영과 민족의 통일을 위해 적은 힘이나마 다 바쳐 갈 마음뿐이다.

재중동포 최대용



최대용(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인민적 시책이 실시되는 조선은 인류의 리상사회

인민사랑의 정치가 펼쳐지고 국가와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조국의 현실은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고있다.

기네 김일성농업과학연구소 소장 채꾸나 까마라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조선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보장해주고 있으며 살림집들을 국가에서 지원해주시고 있다.

조선에서는 정권도 군대도 인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불리운다.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특출한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인민과학자, 인민체육인, 인민배우 등의 칭호를 수여받는다.

인민문화궁전, 인민대학습당, 인민극장을 비롯한 가장 훌륭한 기념비적 건축물들도 인민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빛나고있다.

정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호 그대로 인민의 나라이다.

선군정치연구 네랄문학연단 위원장 쟁코리 바로띠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제국주의반동들의 반공화국선전은 진실성도, 근거도 없는 거짓선전이다.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속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리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미래과학자거리, 미림승마구락부를 비롯하여 평범한 근로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살림집들과 대중봉사기지들이 계속 일떠서고 그 어디서나 사회주의문명을 향유하는 인민의 기쁨과 랑만에 넘친 웃음소리가 끊없이 울려나오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도 세금없는 나라, 무료교육제, 무상치료제 등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는 조선을 두고 인류의 리상사회라고 찬양하고있다.

이 모든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펼치시는 인민사랑의 정치의 빛나는 결실이다.

김정은원수님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강국건설에서 반드시 최후승리를 이루할것이다.

본사기자

썩을대로 썩은 오물 《정권》, 허수아비 《정권》,

《궁정동의 총소리》-오늘도 울려온다

1979년 10월 26일 저녁 7시 40분 서울시 종로구 궁정동에 위치한 중앙정보부(당시) 소속의 한 전문가에서 여의발의 총성이 울렸다.

이로써 1961년 5월 16일 한강다리에서의 총성으로 시작된 《유신》 독재자 박정희의 집권은 10월의 총성과 함께 비극적으로 막을 내리였다.

그때부터 《궁정동의 총소리》는 인민들을 짓밟고 민족을 배반하는 파쇼독재자의 운명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것으로 불리워왔다.

고금동서에 독재자들의 말로는 다 비참하였지만 《유신》 독재자처럼 비참하게 저승에 간 실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자기가 중앙정보부장으로 내세워준 심복의 총에 맞아, 그것도 운명의 수호신처럼 섬기던 미국상전들에게서 마저 버림을 받고 그의 막후 조종에 의해 저승길에 갔으니 그럴만도 하다.

박정희의 비참한 운명은 그가 18년간 저지른 온갖 죄악으로 초래된 응당한 귀결이고 역사와 민심이 내린 준엄한 판결이었다.

그때로부터 37년이 흘러갔다. 그동안 남조선에서 《정권》은 여러번 바뀌었으나 남조선인민들의 자주와 민주, 통일에 살려는 열망은 아직도 실현되지 못하였으며 남조선은 가장 처참한 인간생지옥,

파쇼란무장으로 세인의 조소를 받고 있다.

갖은 거짓공약과 부정협잡의 방법으로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현 집권자 박근혜는 지난 4년여간에 애비가 18년 독재를 하면서 저지른것보다 더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남조선을 최악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위기애로 몰아가고 있다.

친미친일굴종이 체질화된 박근혜역도에 의해 《전시작전통제권반환》이 무기한 연기되고 일본의 천인공노할 군성노예범죄가 베지화되려 하고 있으며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은 참혹히 짓밟히고 있다.

박근혜는 애비의 본을 따서 집권기간에 파쇼에 매달리고 있다. 악명높은 《유신》 독재를 부활시키고 생존권, 자유와 민주, 통일을 부르짖는 인민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정당한 생존의 권리 를 주장하는 백남기농민을 물대포를 직접 조준하여 쏘대여 살해하고도 시체마저 부검하려고 날뛰는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이미 인간이기를 포기한 야수의 집단이다.

가진 자들만을 위한 정치로 남조선경제는 위기의 늪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고 민생은 도탄에 빠져있으며 자살자, 《탈남자》들의 행렬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박근혜의 집권기간은 《세월》 호참사와 메르스사태를

비롯하여 인민들을 죽이는 대형 참사의 런속이었다. 래일에 대한 회망마저 잃은 남조선인민들은 사회를 《헬조선》, 《망한민국》이라고 개탄하고 있다.

동족압살을 노린 극도의 대결정책에 의해 북남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처해있고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를 핵전쟁위험이 항시적으로 떠돌고 있다. 미국의 노복인 박근혜는 남조선인민들에게 위험천만할뿐 아니라 북침전쟁과 주변국들을 위협하기 위한 《싸드》까지 끌어들이기로 해 각계의 커다란 항의규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우병우, 최순실사건이 련이어 터지고 《정권》의 부폐상은 만천하에 폭로되어 인민들의 원한과 분노는 하늘땅에 사무치고 있다.

자기가 저지른 죄로 하여 박근혜는 지금 최악의 통치위기에 처하였다. 역도의 《지지률》은 최하로 떨어지고 《전통적인 지지층》마저도 박근혜에게 등을 돌려 대고 있다. 어디서나 울리는 것은 집권자에 대한 원한과 분노의 목소리이다.

남조선의 거리들과 과업현장에서, 마을과 학교, 지어 《국회》에서까지 매일같이 유틸 나오는 분노와 규탄의 함성은 박근혜에게로 날아가는 보이지 않는 총탄들이다. 그

것이 언제 실제 총탄이 되어

날아갈지 누구도 알수 없다.

최근 최순실사건의 흑막들이 런속 밝혀져 박근혜는 《사파》 놀음으로 인민들에게 머리를 수그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나마도 위기를 모면하고 인민들을 기만하기 위한 사파아닌 《사파》라는것이 후에 폭로된 자료들에 의해 날날이 밝혀짐으로써 분노한 인민들과 정치인들속에서 박근혜를 권력의 자리에서 당장 몰아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하게 일고 있다.

37년 전 애비가 총에 맞아 뛰진 10월 26일을 전후하여 죄악에 이른 《정권》 위기는 독재자 박근혜를 저격하는 오늘의 《궁정동의 총소리》라고 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가장 비참한 파멸의 운명을 당한 애비를 《명예회복》 시키려고 박근혜는 권력을 휘둘러 별의별 놀음을 다 벌려놓았지만 오히려 제 애비보다 더욱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것이 현실이다.

지금 이 시각도 박근혜에게 날아오는 보이지 않는 종오의 총탄은 그칠새 없다. 남조선 내에서도 날아오고 동족대결 악녀를 하루빨리 정벌하라는 웨침이 들려오는 거제가 사는 곳곳에서도 날아오고 있다.

거제와 민족앞에 천추에도 씻지 못할 만고대역죄를 지은 박근혜는 역사와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것이다.

허영준

얼마전 남조선의 청와대 인터네트에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쓴 편지 한통이 실리였다.

『중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제가 박근혜 《대통령》님께 아뢰울 내용이 있어 이 글을 남깁니다.』라고 시작된 편지에는 《세월》 호참사당일 박근혜역도가 종적을 감추었던 7시간과 개성공업지구폐쇄, 백남기농민의 사망 등에 대하여 적라라하게 쓰여져있다.

이 편지가 독자들의 이목을 끌게 된데는 나어린 중학교 2학년생이 썼다는데 있다. 중학교 2학년생이라고 하면 아직 철부지라고 할 수 있다.

세상물정에 대해 아는 것 보다 모르는것이 더 많은 중학교학생들까지 도덕성이

왜 박근혜 《대통령》에게 부족한지 실례를 들어 알려 준다면 도덕성과 양심을 지니라고 야유하는 편지내용은 그야말로 박근혜를 반대하는 남조선의 민심을 그대로 볼수 있게 하고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자기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세월》 호와 함께 수장되는것을 보면서, 쌀값을 올려달라고 웨치는 백남기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로 쏘아 죽게 만든것을 보면서 《대통령》이기 전에 인간이 아니라는것을 두눈에 똑똑히 새겨둔 남조선 학생들이다.

『대통령』의 감투를 쓰

기전에는 모든것을 다 해 결할듯이 분칠을 해대고 권력의 자리에 들어 앉아서는 국민을 개, 돼지로 보며 온갖 사기와 협잡을 일삼고 있는 박근혜에게 학생은 편지에서 《국민들이 개, 돼지로 보이셨습니까? 개, 돼지들이 적당히 병 걸려 죽든지 말든지 하셨습니까?》라고 꼬집었다.

아이들의 눈은 사진기와도 같다는 말이 있다.

철없는 아이들의 마음에도 자기 부모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민족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자리잡고있다.

그러나 이제는 황천길에 올라야 할 나이에도 《싸드》와 같은 전쟁장비들을 끌어들여 조상의 땅을 재더미로 만들려 하고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통일의 옥동자를 전면증단한 박근혜야말로 철부지학생들도 비웃는 인간초물이 아닐수 없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의 편지는 박근혜와 같은 동족대결의 광신자에게 《선거》표를 잘못 던지여 가슴을 쥐여뜯으며 후회하고있는 남조선인민들의 울분의 폭발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하기에 그 학생은 편지에서 고대철학자의 말을 빌어 박근혜를 이렇게 조소하였다.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다.』

본사기자 강류성

현 《정권》은 사실상 붕괴되었다, 박근혜와 청와대, 내각은 총사퇴하라

남조선인민들과 우리 민족앞에 천만대를 두고 씻지 못할 죄악을 쌓아온 박근혜역도와 그 패당의 통치위기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있다.

《유신》 파쇼통치의 부활과 반인민적 악정, 동족대결과 사대매국에 피눈이 되여온 박근혜역도는 최근 애비의 집권시기부터 제년과 치정관계를 가지고 남조선정치에 깊숙이 개입해온 최태민파 그의 딸 최순실 등 최씨 죽속을 둘러싼 특대형부정부파사건으로 인한 정치적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갖은 술책을 다하여왔다.

최근 남조선의 《JTBC》 방송이 최순실이 버리고 달아난 컴퓨터에서 박근혜의 연설문초안과 최순실이 그것을 수정한 많은 화일들을 찾아내어 공개하였다.

그간 의혹으로만 남아 있던 최순실의 국정개입설이 실재한 사실로 증명되자 정계, 사회계, 언론계 등 남조선 각계가 분노로 들끓고 있다.

《세월》 호참사와 로동

악정, 백남기농민살해사건, 《싸드》 배치강행책동, 통일진보세력에 대한 야만적인 탄압, 갖은 독선과 전횡 등으로 역적폐당에 대한 인민들의 분노와 원한이 하늘땅에 닿은 속에 《최순실게이트》가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박근혜게이트》로 번져 전데 바빠맞은 역도년은 25일 황급히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역도년은 여기에서 최순실이 연설문들을 수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국민앞에 사파한다는 김빠진 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면서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의혹을 비롯한 권력형부정부파의혹의 다른 많은 문제들과 전상규명, 후속조치 등에 대해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다.

이것은 박근혜의 부정부파행위를 비롯한 죄악들을 폭로하고 역도년을 탄핵시킬것을 주장하는 사회적기운이 국도로 고

조되게 하는 역효과를 초래하였다.

남조선언론들은 최순실이 박근혜의 연설문수정뿐아니라 인사문제, 안보문제에 이르는 국정전반에 개입하였다는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을 련이어 보도하였다.

《서울의 소리》 등 언론들은 남조선의 경제가 파탄되고 조선반도가 전쟁의 위기에 내몰렸으며 민족의 자존심이 일본에 팔려나간 결정적인 리유가 있었다. 일제순사출신인 최태민의 일가에 의해 《대통령》이 만들어지고 남조선을 파란의 수령으로 빠뜨린 비참한 현실이 벌어지고야 말았다고 개탄하였다.

인터넷에서는 《박근혜 탄핵》, 《하야》라는 단어가 실시간 검색되는 단어의 첫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보수언론인 《조선일보》까지도 《하야는 시

끌로 내려간다는 뜻으로 서 관직에서 물러나는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하면서 《4·19혁명은 당시 대통령이었던 리승만의 하야로 일단락되었다.》는 문장을 평문으로 들어 파문을 일으켰다.

야당들이 박근혜의 사파를 불충분한것으로 배격하며 역적폐당에 대한 탄핵공세를 일총 강화하고 있다.

더 불어민주당 대표는 박근혜가 남조선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상황인식을 못하는 것 같다고 비난하였다.

그는 사실상 2명의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해왔다고 하면서 남조선은 지금 최순실의 한마디에 전쟁이 벌어질수도 있는 상태에 처했다고 개탄하였다.

권력형부정부파의혹의 전모를 날낱이 밝혀내며 청와대비서진을 전면교체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국민의 당 비상대책위원장은 박근혜의 사파돌 음은 변명으로 일관된 것, 제하고 싶은 말만 한 것이라고 혐오감을 표시하였다.

박근혜가 국민여론을 똑똑히 알아야 할것이라고 그는 경고하였다.

국민의 당 전 대표는 청와대비서진을 전면교체하고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하며 박근혜를 특별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의당 대표는 이번 사태는 국민들의 좌절감과 배신감을 생각할 때 충분히 탄핵을 추진할 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였다.

이 당 상임대표는 박근혜가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하였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사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하였다.

그는 모든 야당과 언론, 국민 대다수가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으로 규

정하고 있다. 《최순실게이트》가 아니라 《박근혜 게이트》라는 사실이 명명백해졌다. 7개 문장에 의한 눈가립사파로 무마될 일이 아니다. 국민은 개, 돼지가 아니라고 성토하였다.

남조선 정계의 주요인물들과 정치평론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타는 짚에 기름을 부은 격》, 《기강이 봉파된 사건》, 《근본이 무너진 사건》으로 평하면서 역도년이 마지막 못해 인정하는 태도로써는 《대통령》 하야까지 거론하는 민심을 잠재울 수 없다고 평하고 있다.

이전 환경부 장관은 《사실상 이 〈정권〉은 붕괴됐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하였다.

역도년이 기자회견을 마치면서 눈시울을 붉히기까지 한것과 관련하여 이전 총리는 박근혜가 맥빠져보인다고 비명을 질

렀다. 민주로총파 각 지역의 대학생단체들 그리고 백남기투쟁본부, 리명박근혜집권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시국선언과 성명들을 발표하고 박근혜회진운동을 위한 현대투쟁에 돌입하였다.

한편 《새누리당》의 비박계 의원들이 사건에 대한 특검실시와 청와대 전면개편, 박근혜의 탈당을 요구해나서는 등 여당 내에서도 파장이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대변인은 25일 집권여당으로서 현 사태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한다는 당의 립장을 밝혔다.

26일 《새누리당》은 긴급의원총회를 열고 야당이 요구한 특검을 받아들여 하였으며 범죄가 드러나면 《대통령》도 처벌에서 폐지될 수 없을 것을 밝혔다.

외신들은 박근혜집권의 정치위기가 전례없이 심화됨으로써 남조선에서 정치폭풍이 일어나고 있다며 평하였다.

본사기자



송장《정권》의 파멸은 불가피하다

박근혜는 남조선의 혁대 『대통령』들 중에서도 『최악의 대통령』으로 불리우고 있다. 임기를 1년 반 남겨두고 벌써부터 『권력루수』 현상에 처하고 『지지율』은 20% 아래로 까지 뚝 떨어졌으니 그 정상은 말이 아니다. 민심은 이미 『대통령』에게 등을 돌렸고 무너져가는 힘없는 권력이 저지를 것은 부패행위들이 보물처럼 여겨지기 시작할 때일 뿐이다. 박근혜는 이미 지켜줄 사람도, 기댈 지반도 사실상 없어버린 불운한 『대통령』이다.

《어쩌다 당선된 그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을 때 『새누리당』 것들은 『준비된 남조선 대통령』을 광고하느라 범석이었다.

그들의 미사여구에 현혹되어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다.

하지만 그 할미꽃의 뿌리에 독이 있다는데 대해서, 너자아닌 그녀자가 어떤 악을 품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이 떠오르지 못했던 것 같다.

불과 3%의 차이로 겨우 당선된 박근혜, 하지만 그것이 정보원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이 이 총동원되어 벌린 부정협착 놀음의 결과였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났다.

정보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의 진상과 『박근혜하야!』를 요구하는 인민들의 분노는 초불로 타올랐다.

남조선전역에서 타오른 범국민대회의 초불집회장들에서는 박근혜에 대한 야유조소의 노래소리가 끊임없이 울려퍼졌다.

초불투쟁으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의 『그대는 왜 초불을 켜셨나요, 그대는 왜 초불을 켜셨나요, 빼앗긴 민주주의 누구에게 말할까요, 사랑의 초불이여 민주의 눈물이여』라는 『초불』 노래

도 있었고 불법 『대통령』 박근혜를 조소하는 『불법으로 『대통령』 된 그 사람』 그러

나 모르쇠로 생겼네, 국정원 『대선』 개입 몰래 감추려 내

란음모 조작하는 못된 그 사람, 『유신』 비서 김기춘이 물었지 세상에서 젤 무서운게 뭐냐고,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건 초불이라며 내란음모 조작하는 못된 그 사람』이라는 『그때 그 사람』을 가사를 고

쳐부른 노래도 있었다. 통합진보당의 『내란음모』 사건을 꾸며내여 저들의 죄악을 덮어

《껍데기뿐인 이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2014년, 온 남조선이 상가집이 되었다.

『세월』 호침몰과 함께 300여명의 아이들을 비롯한 수

풍자노래로 악녀의 종말을 본다

만인의 원성을 사고 지탄을 받으며 날로 꺼져가는 늙은 박근혜의 비참한 운명은 남녘도 처에서 울리는 풍자노래에도 비끼여 있다.

민심의 박근혜에 대한 저주와 분노와 울분의 목소리가 그대로 숨배여 있는 풍자노래는 해를 거듭 할수록 더욱 크게 울리며 박근혜를 지옥의 문어구에 사정없이 떠밀고 있다.

버리려는 박근혜 폐당의 모략을 조소하는 『아리아리랑과 스리스리랑은 아라리가 낳았고, 대글부정과 부정선거는 국정원이 낳았네, 대글만 잘 쓰면 『대통령』이 되고요, 전기밥통 잘 쓰면 내란세력이 되지요』라는 『진도아리랑』을 개작한 노래도 있었다.

『닭아닭아 그네닭아, 청와대서 노는 닭아, 꼬꼬대 꼬꼬 닭소리에 서민들만 죽어가네... 국정원은 대글닭, 조종동은 거짓말닭, 겸찰경찰 생까는 닭...』이라는 『닭타령』도 불리워졌다.

가장 인기를 받으며 각계층에서 불리워진 노래는 『어쩌다 당선된 그네』였다.

『어쩌다 당선된 그네 모습에 내 희망을 빼앗겨버렸네 어쩌다 당선된 그네 눈물에 내 마음은 무너져버렸네

그네에게 책임이 있는데 왜 이리 대답이 없을가

말을 하고 싶지만 듣지를 않아...

그네 그네 너는 부정인가봐』

박근혜에게 표를 주었던 후회와 실망, 선거구데타로 권력을 가로챈 불법 『대통령』 박근혜를 인정하지 않는 민심의 반영이었다.

새 『정권』의 새로운 정치 하에서 새 생활을 소원했던 남조선인민들의 꿈은 산산이 깨여졌다.

『당신의 선택에 무조건 따라오라고 그렇게 살면 별탈 없을 거라고 해놓고, 당신들은 안녕들 하십니까? 우린 정말 안녕하지 못한데... 그동안 우리 살아가는 얘기 누가 들어줬습니까? 아프고 아프죠, 안녕하지 못하니까』

박근혜의 집권 기간에 절대로 안녕 할 수 없다는 『안녕하십니까?』의 노래로 2013년은 저물어갔다.

뛰어 했지만 실지 구조자는 『0』 명이었다.

인민들은 분노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 박근혜가 책임져라』

그러나 박근혜는 『가만히 있으라』 했다.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 앞날의 꿈을 차디찬 바다물속에 수장한 아이들과 가정과 미래의 꿈을 통채로 빼앗긴 부모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죽이는 것이 박근혜가 아닌가.

추모의 노란 땅기, 노란 초불 바다에 추모시가 탕독되었다.

『껍데기뿐인 이 나라를 떠나는 아이들아, 너희들이 강남에 사는 부모를 떠나도 이렇게 구조가 더뎠을가, 너희들 중 누군가가 정승집 아들이거나 딸이었어도, 제발 좀 살려달라는 목멘 호소를 『종북』이라 했을가,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절규하는 엄마를 전문 시위군이라 했을가, 너희들의 삶과 죽음을 단지 기념사진으로 남기는 나라, 아니다, 이미 『국가』가 아니다. 그리니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에 의한 타살이다, 리윤만이

덕인 자본과 공권력에 의한 혐살이다.』

가수의 꿈을 피우지도 못하고 『세월』 호와 함께 차디찬 바다물속에 잠긴 너 학생이 생전에 즐겨부른 노래 『거위의 꿈』이 초불바다우에 울려퍼졌다.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 나 그 벽을 넘고서, 저 하늘을 높이 날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웨치던 박근혜때문에 수백명 학생들의 고운 꿈이 바다속에 잠겨버렸다.

『유신』 독재의 부활을 꿈꾸는 박근혜때문에 수천만의 서민들이 지옥을 현실로 체험하게 되었다.

생지옥의 남조선을 비명에 떠난 아이들이 천국에서 나마고운 꿈을 꾀울 것을 바라는 아빠, 엄마들의 소원이 담긴 『천개의 바람이 되어』, 『그 날이 오면』, 『애들아 올라가자』 등의 노래가 초불광장을 눈물광장, 분노의 광장으로 만들었었다.

『난 그런 여자가 싫더라』

박근혜가 내들었던 모든 공약은 다 거짓이였다.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사랑도 거짓말, 웃음도 거짓말』이라는 『거짓말』 노래는 박근혜에게 속아 허탈한 민심의 반영이었다.

인민들의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다.

『이게 나라냐.』, 『더러워서 이 나라를 떠나야지.』, 『나라꼴 개판이다. 박근혜 퇴진』, 『나에게 죽창을 달라.』...

하지만 박근혜는 자신을 『절대적 군주』로 여기면서 독단, 독선, 독주에로 출발 음쳤다.

노래 『새타령』은 『유신』 독재자의 후예인 박근혜를 신랄히 풍자비판한 것이다.

『그 닭 아이이름이 다카기인가 다가카기인가 나는 알털 못혀, 이런 타령 잘못하면 해체되분다는디』는 박근혜의 친일 독재적 기질을 풍자한 것이다. 『닭은 일곱시간동안 슬퍼했나 보드라고』는 노래구절은 『세월』 호참사의 『7시간 행적』을 신랄히 애유조소한 것이다.

박근혜의 손발노릇을 하는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그 닭이랑 친한 빨간 등지에 사는 살이 오를대로 오른 비둘기들은 우물주위를 막 뒤통뒤

『』이라고 비판했으며 검찰, 경찰이 진보세력을 『종북』으로 몰아 탄압하는데 대해서는 『가마귀란 놈들은, 하라는 청소는 안하고 웬 애꿎은 놈들을, 동네 북삼아서 두드려페고... 두들기는 북이름은 종북』이라고 비난하였다.

『박근혜는 드디어 신이 되었다, 정치는 『유신』, 경제는 등신, 복지는 배신, 남북관계는 불신, 미국에는 굽신, 로동자탄압은 악마의 화신』, 이것은 2015년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울린 민심의 웨침이였다.

대회장은 말그대로 독재자를 애유조소하는 풍자마당으로 되었다.

『이십대에 스페(취업에 필요 한 요소들) 좋아 남은 것은 빛더미 반값등록금 지킬 때까지 못낸다고 전해라, 취업걱정 눈높이 낮춰 일하라고 하거든 비정규직 없애기 전엔 못한다고 전해라, 내 집마련 인간관계 꿈희망도 없으니 제대로 된 청년정책 만들라고 전해라』(『백세 인생』)

『곤난하면 해외로 뛰는 너자, 멀치 다섯마리 주면서 군인들에게 생색내는 너자, 친일 독재 아빠 보고싶어서 국정교과서 만드는 너자, 난 그런 너자가 싫더라』(『난 그런 너자 가 싫더라』)

그밖에 『박근혜 3년 헬조선』, 『박근혜 쉽어』, 『세상을 바꾸자』라는 내용들이

『그네는 아니다』

박근혜가 집권 말기에 이를 오늘 남조선은 온통 수라장이다.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사전은 『돈 문제에서는 깨끗하다.』 던 박근혜가 얼마나 더러운가를 다시금 실증해 주었다.

『국회』와 민의를 짓밟고 계속 감싸고도는 우병우 문제는 박근혜의 독재적 기질은 죽어야만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백남기농민사망과 두별살인인 부검책동은 박근혜의 악정이 있는 한 서민들은 살아서 지옥에 살고 죽어서도 편안할 수 없다는 것을 확증해주었다.

『싸드』 배치의 강행은 사대창녀, 전쟁여자 박근혜를 한시 바삐 몰아내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하였다.

성주에서, 김천에서, 철도로 조와 화물현대의 파업장에서, 박근혜를 저주하는 남조선전역에서 노래 『그네는 아니다』가 울려퍼지고 있다.

『그네는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 봐도 그네 아니다...』

『그네는 아니다』라는 소리는?

『세월』 호의 중학생들, 백남기농민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을 잡아먹고 눈썹 하나까딱 안하며 오히려 피해자, 유가족들을 우롱하고 해치려는 박근혜는 인간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남조선을 『망한민국』,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그 모든 책임을 야당, 백성들에게 들씌우는 고약한 박근혜는 『대통령』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외세의 사타구니에 매달려 민족의 존엄, 남조선인민들의 리익을 팔아먹을 것은 다 팔아먹으면서 동족을 그지없이 증오하며 『자멸』이니, 『붕괴』이니 망언만 쏟아내는 박근혜는 조선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이다.

단지 그것은 박근혜에 대한 원성과 부정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늙은 악마를 더이상 그냥 놔두면 안된다 는 울분의 폭발이고 박근혜 없는 세상을 하루빨리 안아오려는 정의와 의지의 세찬 분출이다.

좋게 생각하려 해도 나쁘게

담긴 노래들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았다.

남조선을 넘어 봉건왕조시대로 돌려세운 박근혜에 대한 울분의 민심이 현대판 『풍요』, 『참요』를 창조하였던 것이다.

아니다

만 어려오는 박근혜의 독사 같은 얼굴, 백번천번 다시 생각해도 용서할 수 없는 만고의 죄인, 너자라고 사정을 좀 봐주려고 해도 악만 나고 하루빨리 지옥에 보내야 한다는 생각만이 용암마냥 끓어오르게 하는 미친 청와대야.

『그네는 아니다 정말로 아니다』

가면을 벗고 생각해 봐도 정말 그네 아니다』

독사는 죽는 순간까지 상대를 사정없이 물어뜯는다. 림종에 처한 이 시작에 조차 남녘인민들을 상대로, 북녘겨레를 상대로 증오의 서리를 뿜어대며 미친 나발을 계속 불어대는 청와대의 암독사는 징벌의 마치로 사정없이 내리쳐야 한다.

『가보세 가보세, 읊미적을 읊미적 하다가, 병신되면 못 가보리』

이 노래는 120여년 전 갑오동민전쟁 시기에 불리운 노래이다.

어떻게 하든지 갑오년에 싸움을 잘하여 봉건정부를 뒤엎어야지 읊미적 거리면서 읊미년을 보내고 병신년에 까지 가면 사람이 병신이 된 것처럼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박근혜의 선거구데타가 들통났을 적에 권력의 자리에서 밀어냈어야 했으나 읊미적거리다가 병신년 까지 왔다.

지옥의 망령을 부르는 악녀인 박근혜를 그냥 두고서는, 권력과 부정부패를 총동원하여 보수의 재집권을 노리는 박근혜를 놔두고서는 절대로 안녕 할 수 없고 『세월』 호 참사, 백남기 살인이 그칠 새 없다는 것을 똑똑히 새긴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 타도의 노래를 부르며 항거의 거리들에 나선다.

『...해도 해도 너무 하잖아 민주주의 평화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분노하라 행동하라 이 미친 세상을 바꾸어라 아이들조차 지켜주지 못한 우리가 더 앓을 게 남았더니 더 이상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으리라』

노래 속에, 투쟁 속에, 혁사와 민족의 징벌 속에 만고역적 박근혜의 비루한 운명은 꺼져가고 있다.

본사기자 김현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벌리는 반공화국 제재소동의 진실을 해부한다

최근 미국과 박근혜당이 다 많아 빠지고 거덜이 난 제재의 북통을 계속 소란스럽게 두드려며 반공화국 소동에 지랄발광하고 있다.

그 무슨 『북이 고통을 느낄 때 까지』, 『평양이 전략적سلم법을 바꿀수밖에 없게』, 『북이 변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새로운 『초강도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어리석은 궤변들이 탄무하는가 하면 실행중에 있는 유엔『제재결의』들의 『구멍』을 메우기 위한 제재조항들을 새로 보충하는것을 비롯하여 할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들을 다 동원해야 한다고 미국이 앞장서서 소란을 피워대고 박근혜당은 제발 그렇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하는 한편 저들대로 『독자적인 대북제재』요, 국제적인 『제재공조』 구축이요 하며 가소로운 추태를 부리고있다. 그 와중에 『인권제재』니, 『관광제재』니, 『도덕적

제재』니, 『스포츠제재』니 하는 따위의 해괴하고 극악한 제재방안들이 련이어 고안되는가 하면 나중에는 그 무슨 『3국제재를 통한 압박』의 『시범』이라는것까지 연출되고있다.

비상히 고도화된 우리의 핵무력을 두고 오장이 뒤집혀진자들이 오늘에 와서 『초강도제재』니 뛰니 하고 아무리 소란스럽게 쳐쳐대도 우리에게는 한낱 병신 륙갑하는 소리처럼 들릴뿐이다.

그러나 미국과 박근혜당이 마치 도 저들의 비렬한 제재소동이 세계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기 위한것인듯이 미화분식하고 지어 우리가 『이번에는 절대로 견디지 못할것』이라고 요란스럽게 광고해대며 내외여론을 심히 어지럽히고있는 조건에서 추악하기 그지없는 반공화국제재 놀음의 진면모를 날날이 해부해보자 한다.

집요한 제재소동은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산물

지금 미국과 박근혜당은 저들이 집요하게 벌리고있는 반공화국제재소동이 우리의 『핵도발』과 『인권문제』 때문이라고 떠들어대고있다. 하지만 이것은 가당치도 않고 누구에게 통할수도 없는 궤변중의 궤변이다.

그 구실과 형식은 어찌되었든 우리에게 가해지는 온갖 제재는 본질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껏 끈질기게 추구해온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집중적발로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국토의 분열과 남조선강점으로 시작된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이 지난 세기 50년대 범죄적인 침략전쟁 도발로 이어졌고 그후 반세기가 넘는 장구한 기간 우리에 대한 류례없는 제재와 압박으로 계속되고있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우리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질식시키며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우리 공화국의 이름 그자체를 지도상에서 지워보려는것이 미국이 어제도 오늘도 래일도 악랄하게 추구하는 대조선정책의 기조이며 목표이다.

이로부터 미국은 우리가 핵을 가지기 훨씬 이전에도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하여 공갈과 압박을 가해왔으며 더우기 행전종식이후에는 사회주의기치를 내리우지 않는 한 우리와 절대로 공존하지 않겠다는것을 정책화하고 『악의 축』이니, 『핵선제타격』이니 하는 폭언과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미국의 적대적야망과 핵전쟁위협에 대처하여 우리가 자위적인 국가핵무력건설에서 런속적인 성과를 거둘수록 국도의 당혹감과 좌절감에 휩싸인 미국은 『더 강력한 제재』, 『더 물샐틈없는 제재』를 제창하며 피폐당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을 종동원하여 반공화국적대의 도수를 최대로 높이고있다. 지어 오늘은 우리의 『수뇌부제거』와 『제도붕괴』를 거리낌없이 공언하는데까지 이르렀다.

벌어지고있는 사태는 미국과 피폐당이 우리의 핵과 『인권문제』를 걸고 떠드는 『초강도제재』나 『끌장제재』라는것들이 사실상 우리 공화국의 존재자체를 거부하고 전면부정하면서 우리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가하여 스스로 손을 들지 않으면 안되도록 몰아가보려는데 비렬하고 더러운 속심이 있다는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분별잃은 제재소동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란폭하게 유린하는 날강도적망동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핵무력강화조치를 『국제사회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벌리는 행동』, 『세계평화에 대한 엄중한 위협과 도전』이라고 결고들며 『더우 강력하고 정밀한 제재』를 가하여야 한다고 짓어대고있다. 지어 우리의 대외

관계차단과 유엔성원국자격까지 운운하는 황당무계한 짓거리도 서슴지 않고있다.

이것은 당당한 주권국가인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란폭한 유린이고 자결권에 대한 전면부정이며 생존권마저 완전히 강탈하려는 무지막지

한 횡포이고 날강도적인 전횡이라고 밖에 달리는 볼수 없다.

우리의 자위적핵무력강화조치에는 누구도 침범할수 없는 자주와 존엄에 대한 우리의 정정당당한 주장과 실천이 있다.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자기 인민의 요구와 지향, 리익을 중심으로 국가정책과 발전진로를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추진해나가는것을 철칙으로 삼고있다.

가장 침략적이고 횡포무도한 미국의 항시적인 핵공갈과 위협속에 살아오고있는 우리에게 있어 핵보유는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였으며 자위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정당한 조치였다. 미국이 추종세력들까지 끌어들여 수십년동안 우리 공화국을 적대시하며 방대한 핵타격무력을 포함한 전쟁자산을 총동원하여 침략적인 핵전쟁을 골적으로 강요하고 그에 대한 세계적인 규탄과 억제가 약화될대로 약화된 조건에서 스스로 강력한 핵억제력을 틀어쥐지 않았더라면 우리 민족, 우리 국가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되었겠는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라크나 리비아와 같은 굴종과 태협, 죽음의 비극적종말이 이 땅에서 재현되였을것이다.

물론 우리가 단신으로 핵보유의 대업을 성취하기까지 상상할수도 없었던 값비싼 대가를 치른것은 사실이다. 그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참되게, 가장 행복하게 잘살기 위해 설계된 우리의 결음이 일시적이 나마 떠진다는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애국애족의 고귀한 넋과 참다운 자주정신, 민족의 슬기와 기개가 그대로 어려있는 주체의 핵병기들은 오늘 우리 공화국의 자주와 존엄, 영광의 상징으로, 이 땅의 믿음직한 평화와 안정, 더 높은 발전을 이루하기 위한 튼튼한 담보로 되고있다. 이것을 도리여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사회에 대한 무시』로 결고들고 혈뜯는 것은 극도로 뻔뻔스럽고 날강도적인 궤변이 아닐수 없다.

오늘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핵보유를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고 떠들며 반공화국제재의 갖가지 구실을 계속 꾸며내고있지만 자주권과 존엄을 감히 침해하고 유린하려는 날강도적망동들에 태협하고 물러설 우리가 아니라는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특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제재소동은 우리 인민의 생존권을 통째로 강탈하는 가장 잔인하고 비렬한 반인륜적범죄이다.

우리 공화국을 불빛 한점 없는 원시시대로 돌아가게 만들라고 고아대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가한 전대미문의 경제적봉쇄책 등으로 우리 인민들은 1990년대에는 고난의 행군을 겪어야 했고 그후에도 사생결단의 의지로 가혹한 시련과 난관을 헤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들에게 참을수 없는 불행과 고통을 강요하고 도리여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그 무슨 『인권유린』이니, 『참혹한 실상』이니 하고 결고들며 모든 민생용수출입통로마저 완전히 막고 지어 체육교류를 비롯한 민간교류도 못하게 해야 한다고 고아대고있는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가하고있는 『인권제재』, 『도덕적제재』의 진상이다.

국제사회에 조금이라도 정의와 향심이 남아있다면 우리의 정정당당하고 자위적인 핵보유와 참다운 인권 실상을 문제삼을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존과 발전의 길을 끝까지 가로막는것으로써 저들의 폐배에 대한 복수를 해보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비렬한 제재놀음을 응당 문제시하고 단죄규탄하는 목소리를 높여야 할것이다.

강도의 롤리가 봉동이에 있다면 우리의 진리는 정의로 만장약된 인민의 강력한 힘에 있다.

그 어떤 도전과 역경도 자기의 힘으로 짓부시고 자주권과 존엄, 생존권을 가장 영예롭게 사수하기 위한 우리의 강의한 투쟁이 미국과 박근혜

때당을 비롯한 적대세력의 제재소동을 보기 좋게 짓부시며 최후의 승리를 당당히 선언하는 그 시작을 세계에는 머지않아 보게 될것이다.

불법무도한 제재소동은 공정성을 잃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날조품

지금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유엔

안전보장리사회 그 무슨 『결의』들을 반공화국제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만능의 방편으로 내들고있다. 우리가 진행하는 자위적목적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시험은 물론 평화적인 위성발사와 일상적인 경제활동까지 『유엔결의위반』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나중에는 『북인권결의안』을 비롯한 각종 제재결의안을 만들어내어 국제사회가 우리를 압박할

의무가 있다고 떠들어대고있다.

푼수없는 수탉 제 뚱우에서 임금님처럼 뽑낸다고 저들의 손으로 조작해놓은 속검은 문서장을 교서처럼 내흔들며 우리를 그 무슨 『범죄자』로 몰아대는것자체가 실로 해괴하고 가소로운 망동이 아닐수 없다.

유엔성원국으로서 우리 공화국은 지금껏 누구보다 그 현장과 법규를 존중하고 준수해왔으며 그에 토대하여 대외관계를 맺고 발전시키는것을 중요한 원칙으로 삼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이 시비거리로 삼고있는 우리의 핵시험과 탄도로케트발사시험, 위성발사에 대해 말한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 성원국들을 비롯하여 이른바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이 오래전부터 앞다투어 진행해온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제한한다는 조항은 유엔현장과 국제법규의 그 어디에도 명기되어있지 않다. 더우기 그 수많은 조항과 문구들의 어디에도 황금만능의 미국식가치관과 요구를 받아들이면 정상국가의 취급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세계평화와 안전에 대한 『도전』으로, 『인권유린』으로, 『제재대상』으로 되어야 한다는 항목은 더더욱 없다.

하다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는 도대체 어떤 근거로 우리에 대한 거듭되는 『제재결의』들을 채택하고있는가. 우리가 이에 대한 해명을 여러 차례 공식 요청하였지만 유엔은 아직까지 답변을 회피하고있다.

우리는 누구든지 높낮이가 같은 결상에 앉아 문제를 풀자면 기꺼이 손을 내밀것이지만 저들의 폐련적지위를 등대고 우리를 내려다보며 『제재』니 뛰니 하고 오만방자하게 날뛴다면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방식으로 끝까지 단호하게 맞서나갈것이다.

과대망상적인 제재소동은 상대에 대한 극도의 무지에서 출발한 광대극

지금 미국과 박근혜당은 찍하면 『초강도제재』 조치들이 『북의 숨통을 바싹 조이게 될것』이며 이로하여 『체제균열과 내부동요는 더욱 확대』 될것이란다. 『진로를 변경하지 않을수 없게 될것』 이라느니 하여 희여운 수작을 늘어놓고있다.

터무니없는 이 궤변의 배경에는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저들의 제재압박에 굽복하여 태협하거나 얼마 버티지 못하고 무너졌던 것처럼 우리 공화국도 제재압박의 도수를 최대로 높여 끈질기게 들이댄다면 결국에는 손을 들거나 스스로 『봉파』 될것이라는 『제재만능론』에 대한 맹신이 깔려있다.

참으로 상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국도의 무지 앞에서 우리는 진정 가소로움과 실소를 금할수 없다. 왜이 땅에서는 『제재만능론』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제재무용론으로 뒤바뀌고있는가에 대해 미국과 피폐당의 계산법으로써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것이다.

우리 공화국은 황금이 『신』으로 우상화되는 미국식자본주의가 흥내낼수도 따라할수도 없는 주체의 정치사상이다.

우리가 믿는것은 자주적인민이고 그 사상이며 당과 수령의 주위에 하나의 뜻과 협연의 정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이다.

우리스스로가 운명으로 선택한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에서 한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그 최후승리의 축포성으로 인류자주화위업을 선도하려는 천만군민의 의지는 억척불변하다. 제재와 압박이 거세질수록 우리가 옳다는 신념 또한 억세여지며 시련과 난관이 앞을 가로막을수록 힘과 용기는 더욱 백배해지고있다.

제재당신자들은 우리 혁명의 대가 바뀌면 그 무슨 『변화』가 있을것이라느니, 『100번 찍어 안넘어가도 101번째에는 넘어갈수 있다』느니 하고 지껄여대고있지만 이것은 대를 이어 흔들림없이 이어지는 주체위업의 계승성을 너무도 모르고 하는 헛나발이다. 아무리 백년, 천년세월이 흘러도 원쑤들이 고대하는 『변화』가 아니라 백두에 휩쓸리던 붉은 기폭의 색이며 진해질 우리 조국이며 101번째가 아니라 1, 001번째까지 달려들어도 끄떡하지 않을 우리의 청년강국이다. 자신들의 운명과 미래의 리정표를 오직 당시 가리키는 침로따라 정하고 용솟음치는 젊음과 힘으로 조국수호와 부강번영의 큰 짐을 통채로 지고나가는 이 땅의 자랑스러운 청춘들을 함부로 모독하지 말아야 한다.

(7면으로 계속)

(6면에서 계속)

생존과 발전, 번영에 대한 우리의 신념과 전략은 철두철미 자력자강이며 그 어떤 제재도 이 땅에서는 무용지물로 되는 주되는 원인 또한 여기에 있다. 그 누구에 의지하여, 그 어떤 외부의 도움이나 지원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힘과 지혜, 자원에 의지하여 강국건설의 꿈을 실현하려는 것이 우리의 확고부동한 리상이고 절대불변의 의지이다.

우리를 고립시키고 암살하려는 제재가 거세질수록 이 땅에서는 자력자강의 힘이 더욱 천백배로 커지고 더 무섭게 폭발하고 있다는 것을 미국과 피폐당은 알아야 한다.

오늘 더 이상 다른것을 고안해낼래야 별수 없을 정도로 최절정에 달한 적대세력들의 제재와 압박, 위협의 수위이자 곧 최상승기에 들어선 우

리의 경제발전속도와 최종판문을 통파한 핵무력완성의 높이라고 할수 있다. 우리에게는 《제재반능론》이 아니라 오직 제재 대 자강력의 및작용법칙이 통하여 바로 이때문에 우리는 조선의 승리가 필연이고 과학이라고 당당히 말한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상대를 알고 자기를 알면 반드시 이기지만 상대도 모르고 자기도 모르는 무지막지한자들은 기필코 폐망을 면치 못하는 법이다. 서당개도 3년이면 풍월을 한다고 하였거늘 60여년이라는 장구한 기간 우리를 어찌보겠다고 양불락하면서도 아직까지 상대에 대한 무지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영원히 실패할수밖에 없는 제재돌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미국과 피폐당은 자신들의 그 우직함과 미련함에 대하여 이제라도 깊이 반성해보는것이 좋을것이다.

원래 《제재》라는 말의 의미는 권력이나 힘으로 상대방의 활동을 구속하거나 피해를 준다는 것으로서 제국주의자들이 약소국에 대한 지배와 간섭, 강권과 전횡을 실현하는 기본수단으로 되어왔다.

그러나 오늘 지구상에는 상대가 아닌 자기스스로에게 해를 입히는 《제재》, 종당에는 자기자신을 붕괴에 까지 치닫게 하는 기이한 《제재》의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회비극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미국과 박근혜당이다.

세계를 주무른다고 자처하는 뉴욕과 워싱턴의 수많은 정책결정자들이 여기저기 몰려다니며 우리 공화국에

참으로 나쁜 《대통령》

지난 24일 남조선에서 박근혜의 《국회시정연설》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런데 연단에 올라 한참동안이나 《엄중한 안보》니, 《경제상황》이니 하던 그가 《이제는 2017년 체계를 구상하고 만들 시점》이라고 하면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했다.

사실 얼마전까지만 해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느니,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도 어려운데 개헌을 논의하면 블랙홀(검은구멍)이 될수 있다.》며 《개헌》의 《개》자도 꺼내지 못하게 했던 박근혜였다. 그런 그가 불쑥 《개헌론》을 꺼내들었으니 여기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다 아는것처럼 《정권》의 자리에 들어앉아 친미사대와 동족대결에 미쳐날뛰던 박근혜는 오늘 사상최악의 위기에 빠져있다. 그처럼 악을 쓰며 반공화국제재와 압박에 매달렸지만 공화국은 《붕괴》되기는 커녕 나날이 승승장구하고 시대착오적인 《대북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날로 고조

되고 있다. 반대로 남조선은 정치와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박근혜가 마구 휘두르는 파쇼의 칼날밀에서 민주주의는 여지없이 말살당하고 경제와 민생은 끝을 알수 없는 나락으로 굴러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다 《북의 핵 및 미싸일위협》을 구실로 끌어들여려는 《싸드》와 반인민적인 로동정책을 반대하는 남조선 각계층의 투쟁이 도처에서 벌어지고 청와대민정수석비서관의 부정부폐사건에 이어 《최순실게이트》까지 터져 박근혜를 최악의 궁지에 몰아 넣고 있다.

결국 박근혜가 꺼내든 《개헌론》은 대내외정책의 총파산과 특대형부정부폐사건으로 초래된 최악의 통치위기를 모면하는 한편 제2의 《유신헌법》조작으로 보수세집권을 실현해 보려는 얇은 솔책의 산물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지금 남조선야당들을 비롯한 각계층속에서 《눈덩이처럼 터져 나오는 최순실게이트》를 덮으려는 《순실개헌》이자 지지도가 바닥에 떨어진 《정권》의

역도년을 비난

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남조선야당들이 권력형부정부폐사건관계자들을 해외로 도피시킨 박근혜역도를 규탄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사건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박근혜의 진심이라면 해외에서 종적을 감춘 최순실을 불러들여 검찰수사를 제대로 받게 하라고 요구하였다.

그는 총체적국정실패와 무능, 불법으로 남조선을 통한 한 권력형부정부폐행위에 대해 박근혜가 사파하는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하였다.

박철남

국이 우리에 대한 제재소동에 미쳐들 아가면서 주변 강대국들과의 정치군사적 갈등격화로 입는 직접 및 간접적 피해는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얼마나 바빠맞았으면 미국의 한 고위관리가 공개석상에서 《대북제재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느니, 《미국경제에 큰 피해를 줄수 있다.》느니 하고 비명을 질렀겠는가.

박근혜당이 강행하는 제재소동 역시 강력한 대남제재로 전환되어 제순으로 제 집안 불태우는 불이 되고 있다. 올해 들어와서만도 그 무슨 《핵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이니 뛰너 하며 개성공업지구를 전면 폐쇄하는 망동을 부린 대가로 수백 억US\$의 경제적 피해와 수만명의 실업자를 만들어냈는가 하면 세계방방곡곡을 돌아치며 《대북제재공조》를 구걸하느라 박근혜 역도와 그 졸개들이 쥐어뿌린 돈은 가히 만사람의 경악을 자아낼 정도이다. 특히 비약적으로 강화된 우리의 핵공격능력에 겁을 먹고 뒤걸음치는 미국상전의 발목을 불잡느라 천문학적 액수의 혈세를 미국산 불량무기구입과 미군유지비로 섬겨바치고 미핵전략자산의 조선반도전개에 드는 비용까지 알아서 대주었다고 하니 어찌 남조선경제가 망하지 않고 민생이 도탄에 빠지지 않겠는가. 동족에 대한 제재를 구걸하기 위해 미국상전에게 간도 쓸개도 다 꺼내주다못해 세계적인 재앙거리인 《싸드》피물까지 서슴없이 끌어들이려는 박근혜 역도의 천인공노할 망동으로 남조선은 렬강들의 핵전장으로 전락된 것은 물론 중국과 로씨야를 비롯한 주변 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 보복의 대상이 되어 총체적 고립과 붕괴에로 출발음치고 있다.

집재산을 다 불어먹고도 큰소리 치는 도박군마냥 박근혜당이 저들의 비참한 처지에 대해 《고육지책》이니, 《안보리익을 위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하며 그 대가로 《국제사회 대 북조선》의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흐소리를 치고 있지만 현실은 정반대이다.

오늘 우리의 자주적기개와 담력, 무궁무진한 힘은 지구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의 경탄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 우리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세계지성과 향심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으며 우리의 참된 실상을 제 눈으로 보고싶어하는 사람들이 앞다투어 평양행에 나서고 있다. 더우기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도전하는 나라와 세력들이 우리 공화국을 중심으로 하여 새로운 반제반미전선을 형성하고 있는것이 누구도 부정 못하는 엄연한 현실이다.

주체조선의 핵보겸앞에서 공포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미국이 제아무리 눈알을 부라리며 《대북제재공조》를 협박하고 박근혜당이 그 실현을 위해 뛰여나온 것도 오히려 세계적인 비난과 조소거리로 될뿐이다.

* * *

미국이 핵폐권을 휘두르며 추종세력을 규합하여 우리에게 일방적인 제재와 위협을 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미국과 박근혜당이 그 무슨 《선풍타격》을 운운하며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정의의 선제타격은 우리에게도 있으며 이것을 실지로 행동에 옮길수 있는 담력과 배짱을 지닌것도, 정정당당한 명분을 지닌것도 우리 공화국이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으며 미국과 박근혜당이 무자비한 징벌의 불세례를 피할수 있는 최선의 방도는 우리의 존엄과 안전을 건드리지 않고 자중, 자숙하는 것뿐이라는데 대해 거듭 경고하였다. 우리의 경고를 새겨듣지 못하고 지금처럼 부질없는 제재소동에 계속 날뛴다면 그 종착점은 지구상에서 미국이 사라지고 피폐들이 없어지는 전쟁일뿐이다.

자주와 정의의 핵과 강권과 전횡의 핵사이의 판가리결전에서 지금까지 폭제의 핵밀에서 수난을 강요받던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편에 설것이며 미국의 폐련주의에 로끌적인 불만과 격차를 가하던 핵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는가 하는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에 대해 미륙군참모총장이 얼마전에 발표한 어느 보고서에서 《만일 미국이 임의의 시각에 조선, 로씨야, 중국 등 군사대국들과 전쟁을 하는 경우 미군의 전투력은 그에 대응할 수준에 있지 않다.》, 《특히 조선과의 전쟁에서 미국은 승리할수 없다.》고 실토크한것은 우연하지 않다. 매일과 같이 미국에서, 세계정치계에서, 지어 피폐내부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같은 목소리에 미국과 박근혜당이 결코 무시할수 없고 무시해서도 안되는 중대한 의미와 진실이 담겨있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과 박근혜당이 대세에 역행하여 자멸을 재촉하는 반공화국제재 놀음에 미육스럽게 매달린다면 다시는 회복할수 없는 저들자신의 완전초토화, 종국적멸망으로 이어지게 될것이다.

론평원
(《로동신문》에서 전재)

버지의 길을 쫓는 심리가 작용한것》이라고 침을 벨고있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것이다.

천추에 용납 못할 만고죄악을 저질러 민심의 심판대에 오른 박근혜가 《유신》망령으로 기울어진 운명을 건지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다.

박근혜에 대한 남조선민심의 비난과 규탄은 머지않아 청와대의 장송곡으로 이어질것이다.

《유신》독재자의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가 지금껏 애비의 전철을 그만큼 탐습했으면 이제는 그 마지막저승길도 이어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자가 이에 역행하여 《유신》독재망령을 되살리는데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것은 통치위기가 더는 수습할수 없는 국단적인 상황에 처했기때문이다.

정보보모략기구를 총발동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것으로 하여 불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집권초기부터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박근혜는 자신의 더러운 부정부폐사건이 말짱 드러나 더이상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이 갈수록 현 집권자의 탄핵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가고있다.

더우기 현 집권자에게 급한 것은 자기의 반역정치를 뒤반침해주는 보수세력이 흔들리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남은 집권기간 악몽속에 헤매이게 될것은 물론 퇴임후 감옥행을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현 집권자는 제 애비의 빠다귀를 우려먹어서라도 보수층을 집결시켜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데로부터 그 무슨 《공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유신》망령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민심이 《박근혜가 기댈 언덕은 아버지》, 《정치적위기마다 아

만평 기대되는 ...



본사기자

애비따라 저동길로 간다

남조선의 현 집권자가 《유신》독재 망령을 되살리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 있다. 지난 3월 서울에 있는 과학기술연구원 본관앞에 있던 혁신인물동상을 후미진 곳에 옮겨놓고 그 자리에 《유신》독재자의 동상을 세워 각계의 비난을 받은 현 집권자는 이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애비의 생일 100년이 되는 해에는 《박정희기념우표》까지 발행하려고 희책하고 있다.

을 광그리 팔아먹은 매국반역 행위로 일관되여있다.

그는 자기 심복줄개의 총에 맞기 전까지 파쑈동동이를 권력유지의 도구로 삼고 자주, 민주, 통일을 요구하는 인민들에게 마구 휘두르며 온갖 반역행위만을 일삼다가 제 갈길을 잤다.

《유신》독재자가 남조선인 민들에게 끼친 상처는 아물지 않았으며 민족반역의 저주로운 혁사가 더이상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는것이 남조선민심의 지향이며 요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집권자가 이에 역행하여 《유신》독재망령을 되살리는데 더욱 집요하게 매달리는것은 통치위기가 더는 수습할수 없는 국단적인 상황에 처했기때문이다.

정보보모략기구를 총발동한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것으로 하여 불법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집권초기부터 만성적인 정치적 불안정에 시달려온 박근혜는 자신의 더러운 부정부폐사건이 말짱 드러나 더이상 권력을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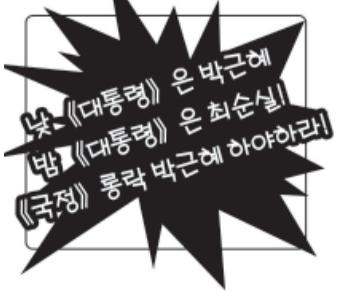
지금 남조선에서는 날이 갈수록 현 집권자의 탄핵파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커가고있다.

더우기 현 집권자에게 급한 것은 자기의 반역정치를 뒤반침해주는 보수세력이 흔들리고 있는것이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남은 집권기간 악몽속에 헤매이게 될것은 물론 퇴임후 감옥행을 당하게 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한것이다.

이것을 잘 알고있는 현 집권자는 제 애비의 빠다귀를 우려먹어서라도 보수층을 집결시켜 최악의 통치위기에서 벗어나보려는데로부터 그 무슨 《공적》에 대하여 요란스럽게 광고하면서 《유신》망령부활에 열을 올리고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조선의 민심이 《박근혜가 기댈 언덕은 아버지》, 《정치적위기마다 아



초보적인 인륜도 짓밟는 깡패행위

남조선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무려 317일간이나 사경에서 헤매이던 백남기농민이 9월 25일 사망한 때로부터 한 달이 넘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사망하면 삼일장, 지체가 높거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사람들은 오일장, 칠일장으로 하는 것을 하나의 관례로 여겨왔다.

이렇게 놓고 볼 때 백남기농민의 평흔이 한 달이 넘는 지금도 안식처를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는 것은 하나의 비극이다.

백남기농민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큰 공로를 세운 사람이 아니다. 일흔 살을 가까이 하도록 농촌에서 농사를 짓던 평범한 남조선의 수백만 농민 중의 한 사람이 바로 백남기이다. 이런 그가 생존권보장을 위한 집회에 나섰다 남조선경찰이 쏘

아대는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귀중한 목숨을 잃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경찰국은 그의 사망이 『병사』에 의한 것이라고 우겨며 부검을 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백남기농민의 사망이 경찰이 쏘아낸 물대포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병사』에 의한 사망이라는 것을 증명함으로써 경찰이 저지른 죄악을 가리워보자는 것이다.

폭력으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저들의 죄악에 대하여 사파와 책임을 질 대신 부검을 요

구하는 경찰의 범죄 적책동은 그대로 반인륜적만행이 아닐수 없다.

지금 경찰은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것이 아니라 『파격시위』에 참가하였다가 『빨간 비옷을 입은 사람』의 주먹질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그 해명을 위해 기어코 부검을 하겠다고

복닥소동을 펴우고 있다. 남조선에서 이런 경찰이 제세상처럼 살판치고 있으니 『제2의 백남기』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불보듯 자명하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고인을 두번씩이나 살해하려는 경찰의 야수적 만행은 두고두고 지탄받아야 할 죄악이다.

본사기자 김 응 절



『칠품이』란 칠삭동이를 낫 추 부른 말입니다.

흔히 육체적으로 변변치 못하고 정신적으로 똑똑치 못한 사람을 팔삭동이라 하는데 그보다 더한 사람을 『칠품이』라고 놀림조로 낫잡아 부릅니다.

바로 남조선에 『칠품이』라 불리우는 그런 녀자가 있습니다.

예, 집권자 박근혜입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탕녀의 기질은 유전적 속성

우리 민족은 순결을 녀성의 제일가는 성품으로 보았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음탕한 녀자에 대해서는 마을에서 자체로 재판을 하고 내쫓기까지 하였습니다.

우리 민족의 풍속대로라면 박근혜는 선참으로 쫓겨났어야 할 텐데입니다.

시집도 가기 전인 20대 초엽에 별씨 40살이상인 최태민이라는 놈쟁이와 불륜관계를 맺었다는 설이 나돌았고 그와의 사이에서 빠져난 자식이 일본에 살고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

한번 가도 화냥이요, 열번 가도 화냥이니 최태민이 죽은 후에는 그의 사위인 정윤희와 또 어찌구자찌구 했다는 음담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때의 『7시간의 흑』은 정윤희와의 불륜관계에 신빙성을 더해줍니다.

도적의 때는 벗어도 화냥의

하지만 그 너울속에 가리워진 어리석고 무능하고 무지스럽고 방탕하고 욕심많은 박근혜의 면모가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남조선인민들은 박근혜를 집권자로 내세운것을 후회하며 『칠품이』라 야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칠품이』만이 아닙니다.

『유신』 애비를 통가하는 향녀, 악녀, 광녀가 바로 박근혜입니다.

『준비된 여성대통령』, 얼마나 화려했습니까.

싸리 끝에서 싸리가 난다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에서 권력은 돈의 갈증을 필수로 합니다.

권력이 돈을 긁어모으는 방법은 부정부폐이고 퀴퀴한 냄새가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지금 남조선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사건으로 시끌벅적한데 거기에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의 검은손이 작용했고 그뒤에는 박근혜가 있다는 후문입니다.

돈긁어내는 수법도 어찌면 애비를 신통히 먹고계웠는지.

『유신』 독재자의 돈줄이였던 『정수장학회』, 다 아시겠지요.

1962년 당시 삼화고무그룹 회장 김지태로부터 강탈해낸 『부일장학회』를 『5.16장학

애비는 군사쿠데타, 그의 딸은 선거쿠데타와 혁사

쿠데타, 기막힌 쿠데타부녀입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

『유신』 독재자를 풍자소한 『그때 그 사람』이라는 노래가 오늘 박근혜에 대한 야유로 이어집니다.